

“전국 어촌계 절반 전남 어민 밀착 지원” 광주은행 남악신도시 남악지점 개점

전남본부 개소식 참석 이종구 수협중앙회 회장

어선·선원 재난 대비 보험 가입 늘릴 것 수산물 유통체계 혁신 한중 FTA 대응

“전남은 어업생산량 1위를 차지하는 수산업의 요충지지만 이를 지원할 본부가 없어 애로가 많았습니다. 12년 만에 부활한 만큼 새로운 마음으로 어업 활성화와 지원에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14일 수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 개소식에 맞춰 광주를 찾은 이종구(62) 회장은 새롭게 업무를 시작하는 전남 지역본부 부활의 의미를 강조하며 회원조합과 어업인에 대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다. IMF 구제금융위기로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폐쇄되었던 지역본부의 뼈아픈 경험을 현재를 이끌어갈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특히 이번엔 지역본부를 개설한 전남은 어업생산량 110만t에 달하는 수산물 중심지로 전국 1900여개 어촌계 가운데 절반 가까운 830여개계를 비롯해 20개 회원조합이 결성되어 있어 수산행정이 집중되어야 할 곳이라고 의미를 뒀다.

이 회장은 전남지역본부가 문을 연 만큼 회원조합과 어업인에 대한 현장 밀착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를 높였다.

하지만 지역의 상황은 아직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어선원보험, 어선보험 가입률이 각각 6.2%와 5.5%에 불과해 해난사고 발생에 매우 취약한 구조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어가 역시 전체 대상 가운데 42%에 그쳐 각종 재난에도 무방비상태라

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회장은 국비 등을 따내 어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저조한 가입률을 높인다는 복안. 특히 해마다 반복되는 태풍과 적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어업인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어선재난에 대비한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지방비 보조 확대 등을 적극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수산관련 각종 회의체나 자문위원회 가입을 통해 수협과 어업인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이며 수산 정책 수립 때 어



업인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담기구를 설치, 조직적·체계적으로 어정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어업인들이 힘을 모아 해양수산부 재설치를 이뤄냈듯이 단결과 화합의 협동정신을 되새겨 지역본

권화 시대에 대응한 효율적인 수산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농업에 비해 열악한 어촌과 어업인의 입장을 대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논의의 쟁점이 되고 있는 한·중 FTA와 관련 정부와 함께 수협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수협은 중국과의 FTA 체결로 관세가 한때 철폐되면 수산업 분야의 피해 금액만 연간 1조1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대책마련에 고심 중이다.

이 회장은 “수산업 개방이 급속도로 진행되면 어업인은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정부에 보상비 마련 등 대책을 요구하고, 수협을 경제사업 중심 조직으로 개편해 FTA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14일 광주시 광산구 무진대로 수협청사에서 열린 전남지역본부 개소식에서 이종구 수협중앙회장(가운데)을 비롯한 참석 내빈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2001년 폐쇄되었다 다시 문을 연 전남지역본부는 본부장 아래 지도총무팀과 공제사업단을 두고 어업인을 위한 현장 밀착형 지원에 나선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1분기 광주·전남 광공업 생산 줄어

올해 1·4분기 광주·전남 지역의 광공업 생산은 줄었으나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호남지방통계청이 ‘2013년 1·4분기 호남지역 경제동향’을 분석한 결과 광주의 광공업 생산은 -1.6%를 기록하며 전 분기(-8.3%)보다 감소율이 둔화했고, 전남에서는 -7.1%로 전 분기(-1.9%)보다 감소율이 확대됐다.

광주의 수출은 10.0%에서 12.0%로 증가율이 확대됐고 전남의 수출은 19.6%에서 6.2%로 증가율이 둔화했지만 증가세를 이어갔다.

취업자 수는 광주에서 2.0%에서 3.0%로 늘면서 고용률이 -0.7%에서 0.1%로 증가 전환, 전남에서는 취업자 수가 3.5%에서 1.5%로 증가율이 감소하면서 고용률이 0.3%에 -0.7%로 감소 전환 등을 나타냈다.

대형소매점 판매는 광주지역에서 전 분기의 3.8%에서 -3.6%로, 전남 지역에서 0.5%에서 -4.4%로 각각 감소로 전환했다. 소비자물가는 광주 1.1%, 전남 1.2%로 3분기 연속 하향 안정세를 유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전남중기청 ‘온라인 채용박람회’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이 14일 우수 중소기업의 채용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광주전남 온라인 채용박람회’를 16일부터 2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방중기청이 주최하고 광주잡코리아가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광주·전남 중소기업 200여 업체가 참여해 150여 명 채용을 목표로 진행된다. 그동안 운영해왔던 ‘우수기업 채용관’, ‘추천기업 채용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산업기능요원 채용관’을 신설해 특성과 졸업생 등 청년 미취

업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국문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취업준비 상담사례 등 ‘취업가이드’와 온라인 사진관, 자기소개서 면접 답변 사전 등 ‘개인 서비스’ 메뉴를 통해 다양한 취업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직자는 채용박람회(myjob.jobkorea.co.kr)에 회원가입 뒤, 취업희망기업에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문의 (062-512-6212).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14일 오후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에 자리잡은 남악지점에서 송기진 행장 및 장만채 전라남도 교육감, 김재무 전라남도의회 의장, 김철주 무안군수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은행 남악지점 개점식을 가졌다.

광주은행 155번째 지점으로 탄생한 남악지점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 및 인구 유입으로 성장하고 있는 남악신도시에 위치하고 있다. 앞으로 남악지점은 금융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남악지구 상권 및 주민들의 금융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화마로 삶터 잃은 상인에 ‘사랑의 가게’ 선물

롯데백화점 광주점 대인시장 식당 리모델링 봉사

14일 오전 광주시 동구 대인시장내 구구식당. 공구통을 든 한 무리의 사람들이 점포를 분주히 오가며 작업에 열중하고 있었다. 이들은 롯데백화점 광주점 임·직원으로 구성된 ‘나눔봉사단’으로 화재로 가게를 잃은 나경자(60)씨의 가게를 청소하고 고쳐 ‘리브하우스’를 만드는 작업을 했다.

대인시장을 대표하는 국밥집인 ‘구구식당’은 일대에서 소머리국밥 맛이 좋기로 소문난 집, 이 식당을 운영하는 나씨는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67㎡(20평) 남짓한 조그

나 다름없는 대공사를 진행했다.

작업에 함께한 나씨는 “불이 난 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난감했는데 희망이 생겼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류민열 롯데백화점 광주지역장은 “환경 개선 사업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력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난 2004년부터 소외된 이웃의 보금자리를 새롭게 고쳐주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나씨 집을 고쳐 올해로 11번째 ‘사랑의 집’을 선물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기아차 증산 더 이상 미룰수 없습니다” 부품협력사 결의대회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62만대 증산 프로젝트가 4개월째 미뤄지면서 부품협력사 임직원들이 증산 촉구에 나섰다.

14일 30여 명의 기아차 부품협력사 임직원들은 이날 기아차 광주공장 남문 앞에서 ‘62만대 증산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광주공장 노조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증산 프로젝트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력사 직원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광주공장 62만대 증산”이라고 쓰인 플래카드와 피켓 등을 든 채 출퇴근하는 기아차 임직원들에게 자체 제작한 ‘광주공장 62만대 증산 촉구’를 위한 호소문’을 배포했다.

협력사 임직원을 대표해 호소문을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부품협력업체 임직원들이 14일 광주 서구 기아차 광주공장 남문 앞에서 62만대 증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빠른 해결을 호소하고 있다.

/남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남독한 김창수 현성테크노 대표이사는 “협력업체들은 이미 증산을 대비해 투자를 완료한 상황에서 증산 지연으로 인해 어려움과 손실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며 “광주공장 노조가 하루빨리 증산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코스피지수 1968.83 (-22.16)	▼ 코스닥지수 505.64 (+0.32)	▼ 금리 (국고채 3년) 2.77% (-0.02)	▼ 원·달러 환율 1,134.00원 (+0.60)
-----------------------------	---------------------------	--------------------------------	--------------------------------



서울시립교향악단

현대자동차와 함께 하는

정명훈과 서울시향의 H-Premium Concert

베토벤, 교향곡 5번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바이올린_클라라 주미 강)

2013. 5. 19(일) 오후 4시 |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협찬 현대자동차 주관 stage one

티켓 VIP 10만원,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문의 02)780-5054 예매 인터파크 1544-1555